

‘미처’ 관련 단어의 형성 및 기능에 대하여:

‘미처, 못미처, 뒤미처, 채’를 중심으로

孫 磊*

I. 머리말

이 글은 한국어 부사 ‘미처’를 중심으로 그로부터 형성된 ‘못미처, 뒤미처’를 포함한 단어들 각각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그들의 기능과 의미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미처’의 기능과 의미를 더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하여 그와 상당히 비슷한 ‘채’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미처, 못미처, 뒤미처, 채’는 ‘차례’, ‘순서’를 나타내는 의미장(semantic field)에 속한 단어로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처, 못미처, 채’는 “아직 정하여 둔 곳이나 범주에 이르지 않다”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뒤미처’는 “뒤이어 곧 정하여 둔 곳이나 범주에 이르다”를 의미하므로 ‘미처, 못미처, 채’와 대립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미처, 뒤미처, 채’는 주로 시간 선상의 앞뒤 시간 순서 즉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비해, ‘못미처’는 “일정한 공간까지 이르지 못한 거리나 지점”과 같은 공간적 의미를 나타낸다. 품사를 볼 때 ‘미처, 뒤미처, 채’는 부사로 쓰이지만 ‘못미처’는 명사로 쓰인다. 기능적으로 ‘미처, 채’는 부정 표현과 흔히 공기하는 반면, ‘못미처, 뒤미처’는 부정 표현과 공기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각종 사전, 중세·근대 한국어 문헌자료, 말뭉치¹⁾를 기반으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로 흔히 부정소(Neg) 호옹 부사²⁾로 불리 왔던 ‘미처, 채’가 형성되는 과정, 문현에서 등장한 시기, 그리고 ‘미처’와 관련된 ‘못미처, 뒤미처’의 형성 과정과 형성되는 계기, 또한 ‘미처, 못미처, 뒤미처, 채’가 가능한 차이점 등 여러 문제를 포괄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미처’와 관련된 단어의 형성과 기능을 보다 면밀히 다루기 위한 준비 단계로, 먼저 핵심 요소인

-
- 1) 이 글은 21세기 세종계획 균형말뭉치(1200만 어절)를 사용한다.
 - 2) 기존 연구에서는 ‘미처’와 ‘채’에 대하여 문법 형식과의 호옹관계에 따라 부정소(Neg) 호옹 부사로 분류하기도 하고, 의미 속성에 따라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 즉 “최종 상태의 未然 상태”를 지시하여 ‘시간 선상의 앞뒤 시간 순서 관계’를 나타낸다는 특성에 주안점을 두어 시간 부사의 하위 분류인 차례 부사로 보기도 하였다(손남의 1995, 김경훈 1996, 임유종 1998, 1999, 서정수 2005 등을 참조). 이에 대한 대표적 논의로는 임유종(1998)과 서정수(2005)가 있다.

(①) 임유종(1998: 70)에서는 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 바 있는데, ‘미처, 채’는 이 중에 부정소(Neg) 호옹 부사로 볼 수 있다.

부 사	어휘 범주 수식 부사	동사/존재사 수식 부사	잘, 높이, 자주
		동사 수식 부사	얼른, 냉큼
		형용사/지정사구 수식 부사	아주, 매우
문법 기능소 호옹 부사		접속소 호옹 부사	만일, 설사
		양태소 호옹 부사	무릇, 설마
		시제/상 호옹 부사	아까, 이미
		부정소 호옹 부사	전혀, 절대로
		일치소 호옹 부사	몸소, 친히

(②) 서정수(2005: 127-129)에서는 ‘미처, 채’를 차례부사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아직 안 이루어진 것” 즉 ‘미연(未然)의 시간’을 나타내므로 부정 표현과 함께 쓰이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 | |
|-----------------------------|------------------------|
| ㄱ. 먼저, 처음, 애초, 당초 | 처음 및 앞선 때를 나타내는 말 |
| ㄱ'. 나중, 마지막, 끝, 중 | 먼저 한 뒤, 중간 및 끝을 나타내는 말 |
| ㄴ. 차차, 점차, 점점, 날로 | 점차적인 시간 변화를 나타내는 말 |
| ㄷ. 이미 벌써 기왕에 | 이미 지난 시간을 강조하는 말 |
| ㄷ'. 아직, 아직껏, 여태, 여태껏, 미처, 채 |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을 나타냄 |

동사 ‘및-’의 통시적 양상을 보기로 한다.

여기서 ‘미처’ 관련 단어들을 함께 묶어 고찰하는 것은 형태, 의미적 관련성을 토대로 개별 단어의 형성 과정이나 기능을 보다 유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기존 논의 중에는 ‘미처’와 비슷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는 ‘아직’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미처’와 형태적으로 의미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단어들을 모아서 유기적인 시각에서 다룬 논의는 지금껏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미처, 못미처, 뒤미처, 채’는 ‘아직’과 비교했을 때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이들 네 단어를 함께 다뤄야 하는 한 이유가 될 수 있다.³⁾

II. ‘미처’의 형성 및 기능

부사 ‘미처’는 동사 ‘및다’ 어간에 ‘-어’가 붙여 형성된 ‘및-+-어’의 발달 형이다. ‘및-+-어’와 같은 통사구성이 단어화를 겪은 끝에 부사로 쓰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 부사는 이외에도 ‘차마(춤-+-아), 다(다 은-+-아), 구태여(구특-+-여), 모두(몬-+-아)’ 등이 있다.⁴⁾ 우선 이 절에서는

3) ‘아직’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이지영(2010)이 있다. 여기서는 중세한국어의 ‘아직’은 현대한국어의 ‘아직’과는 의미가 다르며, 현대한국어의 ‘아직’이 가지고 있는 통사적 제약을 가지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중세한국어의 ‘아직’은 “잠깐, 일단, 임시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현대한국어의 ‘아직’이 가지는 상적 특성과 그에 따라 통사적 제약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미완료상 부사로 규정될 수 있는 현대 한국어의 ‘아직’은 ‘어떤 상태가 발화시에 지속되고 있지만, 이것이 이후 변화할 가능성성이 있음을 함축’하는 맥락, 즉 부정문, 또는 ‘지속’의 상적 특성을 보이는 계사문이나 형용사문에만 나타난다는 통사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4) 이와 비슷하게 ‘용언의 어간-+아/어/여’가 통사구성의 단어화를 거쳐 단어로 형성 된 것 중에는 조사적인 용법을 보이는 것도 있다. ‘조차’, ‘부터’ 등이 그런 것이다. 이들은 동사의 활용형으로 쓰일 때는 ‘얼구를 부터 일후를 어디니〈법화 1:20〉’처럼 목적어를 취하다가 ‘西人녀그로서브텨 오놋다(두시 9:28)’에서처럼 체언이나 ‘체언+조사’의 구에 직접 결합하는 방식으로 용법이 바뀌었다(구본관 1998: 310).

기준의 논의에서 여러 번 언급되어 왔던 ‘미처’의 형성을 동사 ‘및다’의 의미와 연결시켜 자세하게 검토해 보고, 다음에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부사 ‘미처’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동사 ‘및다’와 부사 ‘미처’의 형성

우선 한국어 문헌 자료에 나타난 ‘및다’의 양상을 보자.

- (1) ㄱ. 녀나문 묘흔 相이 ㅋ자 부터와 다르디 아니하고 오직 頂上肉髻와 無見
頂相吳 世尊 을 몬 및느니(唯頂上肉髻及無見頂相 不及世尊)〈월석 8:36b〉
- ㄴ. 모수를 옮겨 가져다가 일했는 모수를 거두어 그 모를 아름답게 흐면 엇
디 넷 사르미게 및디 몯흐리라(以收其放心而美其身 則何古人之不可及哉)
〈번소 8:24b〉
- ㄷ. 밀츠면 현인이오 밀디 몯흐야도 곧 쪘 어딘 일홈을 일티 아니흐니라(及則
賢 不及則亦不失於令名.)〈소해 5:84〉
- ㄹ. 그 長홈애 밀처 그 兄敬홈을 아디 아니리 업스니라(及其長也호야 無不知敬
其兄也丨니라)〈맹해 13:10〉
- ㅁ. 다섯 거슬 일우디 몯흐면 짜홰 그 어버의계 밀츠리니(五者不遂 裁及於
親)〈소학 2:35 b〉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및-’은 문헌 자료에서 ‘및-/밀/-및-’등 여러 형태로 실현된다. 그리고 여기서 ‘및다’는 전부 다 ‘及’자에 대한 언해이다. 위의 문장들을 보면 ‘및다’는 대체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어떤 기준에 다다르다”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대상에 영향이나 작용을 가하다”이다. (1ㄱ)~(1ㄹ)은 첫 번째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고, (1ㅁ)은 “재화가 부모님께 영향을 미치다”의 의미로서 두 번째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현대한국어에서 ‘및다’에 대한 해석이 어떤지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사전을 기반으로 ‘및다’의 해석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표준국어대사전》, 《금성국어대사전》에서는 ‘및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⁵⁾

(2) 몇다 「동사」

「1」【…에/에게】 【…으로】 ‘미치다02『1』’의 준말.

¶ 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스승의 실력에는 몇지 못했다. / 점점 생각이 한쪽으로 몇다.

「2」【…에/에게 (...을)】 ‘미치다02『2』’의 준말.

¶ 일이 어떻게 되리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홍선군이 권세를 잡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형제에게까지야 몇겠나? 『김동인, 운현궁의 봄』

제시된 바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 《금성국어대사전》에서는 ‘몇다’를 ‘미치다(及)’의 준말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동사 ‘몇다’에 대하여 두 가지 의향(sense)으로 나눠서 기술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의향을 더

5) 여러 사전들에서 ‘몇다’를 ‘미치다(及)’의 준말로 취급한 점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몇다’ 즉 ‘미치다(及)’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조선말 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미치다(及)’의 의미들을 지나치게 잘게 분류하였기 때문에 의미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 반면에 《표준국어대사전》, 《금성국어대사전》에서는 완전 명시 접근을 지향하며, ‘미치다(及)’의 비슷한 의미들을 한 의향으로 묶어 작업하고 있어서 보다 간단명료하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 《금성국어대사전》에 제시된 ‘몇다’의 사전 기술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참고로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미치다(及)’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미치다[동]

「1」(일정한 곳에) 가 닿거나 이르다. ¶ 그는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서 있었다.
「2」(일정한 기준에) 다다르다. ¶ 그의 최고 기록은 세계 기록에 4초나 미치지 못하고 있다.

「3」(어떠한 사실에) 말이나 생각이 이르다. ¶ 그들의 사고가 미치지는 못했다.

「4」(힘이나 기운이) 영향을 주다. ¶ 원자력 사고는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피해가 미친다.

「5」(일정한 높이 등에) 이르거나 닿다. ¶ 그의 옆에 여자의 얼굴이 남자의 어깨에도 못 미칠 정도였다.

「6」(때나 장소에) 이르다. 도달하다. ¶ 광주에서 포주읍으로 가자면 읊 조금 못 미쳐 극락교를 건너야 했다.

천착하기 위해 제시된 ‘미치다02「1」’과 ‘미치다02「2」’의 사전 정보를 살펴보기로 한다.

(3) 미치다02 「동사」

「1」【…에/에게】 【…으로】 공간적 거리나 수준 따위가 일정한 선에 닿다.

¶ 우리 편 선수는 결승점에 못 미쳐서 넘어지고 말았다.

선생님이 지목한 아이들의 실력에 내 성적은 못 미쳤다.

성질이 찬찬한 힘안택은 바느질을 즐기며 했고 솜씨는 봉순네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한번 그쪽으로 생각이 미치자 영희의 마음은 갑작스레 불안하고 다급해졌다.

「2」【…에/에게 (...을)】 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또는 그것을 가하다.

¶ 사퇴를 하라는 압력이 그에게 미쳤다.

이번 광고는 판매량을 높이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표준국어대사전》, 《금성국어대사전》에서는 ‘미치다(及)’을 (3)과 같이 두 의미를 가진 다의어로 다루고 있다. ‘미치다02「1」’은 “어떤 기준이 있는데, 한 과정을 거쳐 그 기준에 다다르다”의 의미이고, ‘미치다 02「2」’는 “어떤 대상에 영향이나 작용까지 가하다”의 뜻이다. 이것은 앞서 확인한 문헌 자료에서 나온 의미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리고 비교해 보면 이 두 의미가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치다02「1」’이 ‘한 지점이나 기준치에 점차 다가오는 과정’을 강조하는 반면, ‘미치다02「2」’는 ‘목표 대상에 어떤 작용을 가해 초래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의미적으로 봤을 때 ‘미치다02「1」’은 ‘미치다 02「2」’보다 의미의 유연성 측면에서 부사 ‘미치’와 더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미치’는 “한 지점이나 기준치에 아직 이르지 않다”의 의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한 지점에 점차 다가오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사 ‘미치’는 ‘미치다02「1」’ 준말 ‘및다「1」’의 이간에 어미 ‘-어’가 결합된 통사구성 ‘및-+어’가 단어화를 겪어 형성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위에서 제시한 ‘미치다02「2」’에 관한 예들 중에서는 부정문이 보이지 않지만, ‘미치다02「1」’에 관한 예들

중에는 부정문이 많다는 것이다. 다른 사전의 기술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물론 이것은 “영향이나 작용을 가하다”의 의미를 갖는 ‘미치다02「2」’가 부정문에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사전의 특성상 보다 대표성을 띠는 예문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대표적 예문들 중에 부정문이 많다는 것을 한 경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성은 부사 ‘미처’가 ‘미치다02「1」’의 준말 ‘및다「1」’의 어간에 어미 ‘-어’와 결합하여 형성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미처’의 기능

다음으로는 부사 ‘미처’의 기능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는 ‘및-+어’의 발달형으로서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처음에 나타났을 때 통사·의미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현대한국어에서의 쓰임과 비슷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처’의 기능이 통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포착하기 위해 한국어 문헌 자료와 현대한국어 말뭉치의 조사 결과를 이용할 것이다.

우선 한국어 문헌 자료에 나타난 ‘미처’와 관련된 예들을 보자.

- (4) ㄱ. 도적이 끈득 니르니 미처 피티 몬흐여 김시 그 아들 고지와 고지의 안해 박시늘 더브러서르 잇그러 강의 짜녀 주그니<동신열 2:89b>
- ㄴ. 내 不孝호야 先公의 불이시미 되여 미처 供養티 몬흐고 先妣를 四十年을 섬기되<가례 10: 10b>
- ㄷ. 길히 뱃바 네 부친을 미처 보디 못흐니 어제 후흔 디접흐던 쟁을 니준 듯흐여라<을병연행록 1.465>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부사 ‘미처’는 15, 16세기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고 17세기부터 발견된다. 따라서 용언 ‘및-+어’의 활용형이 17세기에 들어오면서 통사구성의 단어화를 겪어 부사로 쓰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때 ‘미

처’의 어형이 ‘밋처/밀처/미처’가 있다.

그리고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부사 ‘미처’는 처음에 나타났을 때부터 흔히 부정 표현과 공기하며 부정극어로 사용되었다. 더 많은 근대한국어 시기의 예는 (5)와 같다.

- (5) ㄱ. 세팔이 드려가 보더니 밋처 시작디 못흐였다 호거늘 쪽 십여 보를 누려
가 혼 집으로 드려가니 브야흐로 시작호는디라 〈을병연행록 2.txt(1031)〉
- ㄴ. 그 아들을 쫄와 들녀오되 밀처 성에 드디 못흐였다 호누이다 〈계명
2:17b〉
- ㄷ. 사름을 위호야 강설호므로 빼 네 비록 미처 다 횡치 못흐여시나 듯고 기
횡종선호 채 만코 쪽호 횡호야 가져 선과를 중거호 채 이시니 〈경신,
42b〉
- ㄹ. 사름이라 호여 世上에 난 거시 언머치 오래리오 점은 째를 지내치고 아조
밋처 비호지 아니호면 눈 씀적일 수이에 곳 늙어 가느니 〈첩몽 1:16a〉

근대 시기에 부사 ‘미처’는 부정 표현과 호응되었다. 그리고 문현 자료에서 나타난 ‘미처’와 호응하는 부정 표현은 그다지 다양하지 않으며, 주로 ‘-지 못하다’와 자주 공기한 것으로 보인다. (5ㄹ)과 같이 ‘-지 않다’와 공기된 예는 드문 편이다. 또한 자료의 제한 때문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미처’가 형용사와 호응하는 예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사 ‘미처’가 현대 한국어에서 그 쓰임에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말뭉치를 통해 확인해 보기로 한다. 21세기 세종계획 균형말뭉치(1200만 어절)에서 추출된 ‘미처’와 관련된 여러 예들은 다음과 같다.

- (6) ㄱ. 어머니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셨다. (-지 못하다)
- ㄴ.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다. (모르다)
- ㄷ. 미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번 요란한 굉음이 울렸다. (-기 전에)
- ㄹ. 미처 말려 볼 틈도 없이 김철은 방아쇠를 당겨 버렸다. (없이)
- ㅁ. 나는 미처 다 부르지 않은 그 노래를 마저 부르고 (-지 않다)

말뭉치에서 부사 ‘미처’와 관련된 예는 총 510회가 나타났는데, 모두 다

부정 표현과 공기한 경우이었다. 그리고 호응된 부정 표현이 이전 시기보다 상당히 다양해졌으며, 부정 표현들 사이에도 빈도 차이가 나타났다. ‘미처 …지 못하다/ 미처 못’은 300회 이상 나타났는데,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미처 모르다, 미처 …기도 전에, 미처 … 없다/없이’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미처 …지 않다/ 미처 안’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미처’의 출현을 가능케 해 주는 소위 ‘부정의 표현’이 형태론적으로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 ‘-지 못하다, -지 않다’는 명시적 부정표현이고, ‘모르다’와 ‘없다’는 어휘적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다. ‘-기 전에’는 시간 부사절인데, 영어의 ‘before’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때 이는 역시 부정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⁶⁾

말뭉치에 나타난 예문을 살펴보면 현대한국어에서도 ‘미처’가 형용사를 수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미처’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동작과 관련되어 앞뒤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이다.

6) 남승호(1998: 233)에서는 ‘-기 전에’가 부정극어와 공기하는 경우를 제시하면서 ‘-기 전에’를 부정표현으로 취급하고 있다.

- ㄱ. John read the book before anyone else ever did.
- ㄴ. John finished the work before Mary did yet.
- ㄷ.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병원에 가보세요.
- ㄹ. 날씨가 그렇게 추위지기 전에 이 일을 끝내야 합니다.
- ㅁ.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전에

(ㄱ, ㄴ)은 before 절에서 부정극어 ‘ever, yet’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ㄷ, ㄹ, ㅁ)은 기존의 연구에서 부정극어로 다루었던 ‘더 이상’이나 ‘그렇게’ 그리고 숙어적인 부정극어 ‘손가락 하나 까딱하’가 ‘-기 전에’로 형성된 시간 부사절에서 나타나는 경우이다(최진영, 1999). 이와 같이 부정의 표현과 함께 쓰이는 부정극어들이 “-기 전에”로 형성된 부사절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기 전에’ 역시 의미적인 부정의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승호(1998: 233-237)에서는 ‘-기 전에’ 부사절에서 부정극어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기 전에’의 반부가 함수로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III. ‘못미치’의 형성 및 기능

‘미치’는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 “어떤 행동이나 동작이 아직 미치지 못하다”의 뜻이다. ‘못미치’는 “일정한 곳까지 미쳐 이르지 못한 거리나 지점”이라는 뜻인데, “아직 어떤 지점에 다다르지 못하다”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형태면에서도 ‘못미치’는 부사 ‘못’과 ‘미치’가 결합하여 합성된 것으로 보인다.⁷⁾ 이제 ‘미치’로부터 ‘못미치’가

7) 한편 최형용(2003: 101-104)에서는 ‘못미치’의 형성 방식을 통사구성의 단어화로 보고 있다. 즉 통사구성 ‘못 및다’가 연결 어미 ‘-어’와 결합하여 ‘못 및-+어’가 형성되고, 이것이 단어화를 겪어 ‘못미치’가 형성된다는 얘기다. 현대한국어에서 ‘건너질려, 끈이어, 듣다못해, 마침몰라, 이리하여, 하다못해’와 같이 연결 어미 ‘어’가 통사적 구성을 단어화에 참여하는 예들을 고려해볼 때 ‘못미치’의 형성도 통사구성의 단어화일 것이라 보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 또한 필자가 중세·근대 한국어 문헌 자료에서 ‘및다’가 부사 ‘못’과 같이 단형부정문을 형성하는 예를 많이 발견했는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못미치’를 통사구성의 단어화로 볼 근거가 될 수 있을 듯하다.

- ㄱ. 너나문 데흔 相이 그자 부터와 다르디 아니하고 오직 頂上肉髻와 無見 頂相共 世尊을 못 및느니 (唯頂上肉髻及無見頂相 不及世尊) 〈월석 8:36b〉
- ㄴ. 諸天이 비록 像넷 光明이 이서도 부엇 光明에 못 및느니라 (諸天雖有常光 不及佛光) 〈월석 14:18b〉
- ㄷ. 니르시는 말 몬 모차 다른 마를 몬 미쳐 ھ야 계시거든 잡말ھ야 셋디 마를 디나라(故戒以安坐 執猶守也 久坐好異 長者不及母僊言) 〈번소 3:28a〉
- ㄹ. 초십일 평양의 니르니 십여 리를 못 미쳐 슈유나모 수풀이 길 좌우를 끼고 〈을병연행 150〉
- ㅁ. 과거를 몬 미쳐 보아도 아바님웃 브스시던 중이 다시 등흐시게 되면 즉시 누려갈 거시니 〈곽씨 98-7〉

여기서 ‘못 및다’는 ‘不及, 未及’에 해당된다. 그 의미는 “일정한 기준에 채 이르지 못하다”인데, 일단 현대한국어에서 명사로 쓰인 ‘못미치’와 의미·용법적으로 달라 보인다.

이 글에서 ‘못미치’의 형성 방식을 통사구성의 단어화로 볼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못’과 ‘미치’가 각각 자립적인 단어라는 점, 그리고 통사 구성 ‘못’

형성되는 과정 및 형성되는 계기가 무엇인지⁸⁾, 또한 의미·품사·기능적으로 ‘미쳐’와 다른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중세·근대 한국어 문헌 자료에서는 ‘못미쳐’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못미쳐’는 현대 한국어 시기에 들어와서 ‘못’과 ‘미쳐’가 결합되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못미쳐’의 형성 과정 및 형성 계기는 ‘미쳐’가 부정극어로서 부정 표현과 공기하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부사 ‘미쳐’와 공기하는 부정 표현에는 ‘-지 못하다/못’과의 호응이 가장 많다. 그리고 ‘미쳐’ 그 자체에 “아직 미치지 못하다”와 같은 타의(他意) 부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부정 부사 ‘못’을 형태적으로 앞에서 외현시킨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사 ‘미쳐’가 ‘-지 못하다/못’과 자주 공기하는 것은 ‘못미쳐’가 형성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미쳐’와 ‘못미쳐’는 겹친 부분이 많지만, ‘못미쳐’는 ‘미쳐’와는 달리 현대 한국어에서 상당히 구체화되어 오직 “일정한 곳까지 미쳐 이르지 못한 그 거리나 지점”만 가리킨다. 즉 공간적 의미만으로 쓰인다. 이를 통해 의미적·분포적으로 시간적 의미로 사용된 ‘미쳐’와 구분된다.

다음은 사전 기술을 기반으로 현대한국어에서 ‘못미쳐’의 기능을 보도록 하자.

(7) [조선말 대사전]

못미쳐 「부」

「1」(주로 거리나 지점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쓰여) 어떤 곳까지 채 미치지 못하여.

‘미쳐’와 명사 ‘못미쳐’가 의미·용법적으로 거리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못미쳐’를 일단 보다 더 한국어 화자의 공시적 직관에 부합하는 합성어로 보고자 한다.

8) 여기서 ‘형성 계기’라는 것은 ‘한 단어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그 환경과 원인’을 가리킨다.

¶ 목적지까지 못미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2」(주로 거리나 지점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명사로 쓰여) 일정한 곳까지 채 이
르지 못한 거리나 지점을 가리켜 이르는 말.

¶ 농장마을 못미쳐 있는 작은 언덕의 파수밭.

[표준 국어 대사전]

못·미쳐 「명」 일정한 곳까지 채 이르지 못한 거리나 지점.

¶ 우리 집은 큰길 못미쳐에 있다.

나는 기범을 용산역 못미쳐의 전차 정류장 앞에서 불쑥 만났다. 《홍성원, 무사와 악사》

활동사진관 못미쳐 자동차부 앞에 섰던 운전사다. 《염상섭, 삼대》

우연히 들길에서 같은 동행이 된 그들과 관옥은, 그날 컴컴한 한밤중에야 수원 못미쳐의 어느 혼락에 다다랐다. 《홍성원, 육이오》

제시된 바와 같이 ‘못미쳐’는 소수의 사전에만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품사에 대해서도 각각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조선말 대사전》에서는 ‘못미쳐’를 일차적으로 부사로 보면서 그 명사적 기능을 인정하는 반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못미쳐’를 명사로 기술했다. 여기서 문제가 없지 않다. 《조선말 대사전》에서 제시된 소위 부사로 사용된 ‘못미쳐’의 예문을 분석해 보면 ‘목적지까지 못미쳐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에서의 ‘못미쳐’는 부사가 아니라, 동사 ‘미치다’ 어간에 어미 ‘-어’가 결합된 것을 다시 부정시켜 형성된 ‘목적지까지 못 미쳐’와 같은 절이다. 이 경우 띠어쓰기를 해야 하지만, 분석의 오류로 인해 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만약에 ‘못미쳐’를 부사로 본다면 이를 성분부사와 문장부사 중 어느 것으로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못미쳐’를 부사로 처리하는 《조선말 대사전》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다.

이 글에서 조사된 여러 예문에서 나타난 ‘못미쳐’의 기능 중에서는 부사로 기능하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기에, 이를 명사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주지의 사실과 같이, 합성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요소의 결합 양식이 통사 규칙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못미쳐’는 부사 ‘못’과 부사 ‘미

처’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 명사이기 때문에 ‘잘못’과 같이 비통사적 합성 명사로 볼 수 있다.

현대한국어에서 ‘못미처’는 공간적인 의미로만 쓰인다. “일정한 곳까지 미처 이르지 못한 거리나 지점”이라는 의미 속에 빈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소 명사 뒤에 나타나야 하므로 의존명사의 특성을 보인다. 그리고 명사로 쓰인 ‘못미처’는 더 이상 부정표현과 공기하지 않는다.

IV. ‘뒤미처’의 형성 및 기능

‘미처’와 관련된 단어로는 ‘뒤미처’도 있다. ‘뒤미처’는 “어떤 사건이 먼저 나타나고 곧 이어서 다른 사건이 발생되다”의 뜻이다. ‘미처’와 ‘뒤미처’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미처’는 “어떤 행동이 아직 정하여 둔 곳이나 범주에 이르지 못하다”를 의미하지만, ‘뒤미처’의 경우에는 ‘미처’의 의미에 ‘뒤’의 의미가 추가되어 전체는 “뒤이어 곧 정하여 둔 곳이나 범주에 이르다”와 같은 반대의 의미가 된다. 여기서 ‘미처’와 ‘뒤미처’가 반의관계가 되는 것은 ‘뒤’ 때문이라고 본다. ‘뒤’는 “뒤잇다”的 뜻인데, 이는 선후행 사건의 발생 사이에 시간 간격이 없음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원래 “이르지 못하다”의 의미를 가진 ‘미처’ 앞에 ‘뒤’가 나타나 ‘뒤미처’ 전체가 “이르다”的 뜻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뒤미처’는 중세·근대 한국어 문헌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역시 현대한국어시기에 들어오면서 ‘뒤’와 ‘미처’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리고 ‘뒤미처’의 형성 방식은 ‘못미처’와 유사한, 통사 구성의 단어화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뒤’와 ‘미처’가 각각 자립적인 단어라는 점, 그리고 중세·근대 한국어 문헌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고, 현대 한국어 시기에만 나타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단 이를 보다 더 한국어 화자의 공시적 직관에 부합하는 합성어로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뒤미쳐’가 나타나게 만든 그 원인 즉 형성 계기는 합성이 생성의 중요한 특징인 하위범주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⁹⁾ ‘미쳐’와 ‘뒤미쳐’가 시간 선상의 순서를 나타내는 부사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미쳐’보다 ‘뒤미쳐’의 의미가 더 구체화된다. ‘미쳐’는 “아직 이르지 못하다” 그 상태만 의미할 뿐 ‘정하여 둔 곳이나 범주’에 이르는 거리를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뒤미쳐’와 같은 경우 “참고대상이나 사건 바로 뒤에 따라, 곧 이어”를 의미한다. 여기서 ‘바로 뒤에, 곧 이어’라는 말은 ‘정하여 둔 곳이나 범주와 거리가 없다/거리가 영(zero)이다(그 범주에 이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뒤미쳐’는 ‘미쳐’보다 그 개념이 세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못미쳐’와 ‘뒤미쳐’의 형성 계기를 ‘미쳐’와 관련지어 비교할 수 있다. ‘못미쳐’는 ‘미쳐’에 가지는 부정적 의미가 흔히 ‘못’ 부정문과 호응되어 형성된 것이라면, ‘뒤미쳐’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미쳐’의 개념을 보다 세분화하고자 하는 요구, 즉 새로운 개념을 위한 기호의 필요성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전 기술을 통해 ‘뒤미쳐’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8) [조선말 대사전]

뒤미쳐 「부」 뒤에 잇달아 곧.

¶ 뒤미쳐 다닫다. 뒤미쳐 물어보다. | 방문을 여닫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뒤미쳐 사람들의 신발소리가 들렸다. 《장편소설 림꺽정 4》

9) 합성이의 기능에 대하여 Downing(1977)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ㄱ. 지시물의 하위범주화(예: bowl → sugarbowl, ricebowl)
- ㄴ. 명칭의 제공(예: Liberty Bell, Hoover Dam)
- ㄷ. ‘전보 문체’에 해당하는 수단 제공(예 :cradle song → a song to lull a child in the cradle to sleep)

이 중에 하위범주화에 의한 합성이 형성이 가장 생산적이다. 이 점에서 하위범주화는 합성이 형성의 중요한 요소이자 기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표준 국어 대사전]

뒤미처 「부」 그 뒤에 곧 잇따라.

¶ [뒤미처] 쫓아가다/비가 오고 [뒤미처] 바람도 불기 시작하였다.

김 군이 [뒤미처] 따라 나와 아래층까지 배웅을 하여 주었다.

총각이 벽장 속에 숨기 바쁘게 [뒤미처] 민병들이 아우성치며 들이다쳤다.

[우리말 큰사전]

뒤:-미처01(이) 그 뒤에 잇달아 곧. ¶ 네가 떠나자 뒤미처 그가 찾아왔더라.

뒤:-미처02(이) 뒤떨어져. (합남).

[금성 국어 대사전]

뒤:-미처 「부」 그 뒤에 곧 이어.

¶ 어여쁜 산새 한 마리가 포드득 벼들거리를 박찼다. 뒤미처 또한 마리가 먼저 온 놈을 부르며 날아들었다 《朴鍾和 多情佛心》.

[연세한국어사전]

뒤미처 [부] 뒤에 곧 이어. 잇달아.

¶ 뒤미처 종민네 어머니가 쫓아왔다.

이윽고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오고 뒤미처 네댓 개의 밝은 햇불이 나타났다.

‘뒤미처’는 여러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들에서 일괄적으로 부사로 처리하고 있어, 명사적 용법을 가진 ‘못미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는 두 문장을 연결하여 선후행 사건이 시간 간격이 없이 순서대로 발생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 ‘뒤미처’는 더 이상 부정 표현과 공기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미처’는 본래 “아직 이루지 못하다”와 같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지만, 앞에 “뒤잇다”를 의미하는 ‘뒤’와 결합하게 되면 그 부정적 의미가 사라진다. 결국 ‘미처’와 반의관계를 가진 ‘뒤미처’는 부정표현과 공기하지 않게 되고, 오직 ‘곧 잇따라’와 같은 시간 순서만을 나타내는 부사가 된다.

V. ‘채’의 형성 및 기능

현대한국어에서 ‘채’는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 이는 “어떤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미처’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채’와 관련된 사전 기술을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 ‘미처’와의 공통점을 확인해 보자.

(9) [표준국어대사전]

채10 「부」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소리를 질렀다./열다섯이 채 될까 말까 한 소녀였다. 황제의 손에는 먹물도 채 마르지 않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문열, 황제를 위하여》』

[금성 국어 대사전]

채10 「부」 어떤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
『사과가 채 익지 않았다 /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출발했다.』

[연세한국어사전]

채 [부] 「1」다. 완전히.

『주차장으로 들어선 버스가 채 멈추기도 전에 사람들은 우르르 일어섰다. 수육은 눈도 채 뜨지 못하고 창을 열었다. 물이 흘러나오는 바위벽에서 아직 채 마르지 않은 담쟁이 잎을 하나 땄다. 「2」아직.
『일이 터진 것은 그로부터 한 시간도 채 안 되어서였다. 학교까지는 걸어서 오 분이 채 안 되는 거리이다. 키는 170센티미터 정도이고 몸무개는 50킬로그램이 채 되지 못한다.』

‘미처’와 비슷하게, ‘채’도 여러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제시된 ‘채’의 예에서 후행하는 부분이 모두 부정적인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기술에서 “부정 표현과 호응하다”는 설명은 결여되어 있다. 이는 ‘미처’의

경우와 상반된다. 즉 ‘채’에 대한 사전 기술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¹⁰⁾

세종계획 균형말뭉치(1200만 어절)에 나타난 ‘채’의 예에서도 이를 ‘미처’와 같이 부정극어로 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부정 표현과 함께 나타난다.

- (10) ㄱ.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소리를 질렀다. (-기 전에)
ㄴ.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왔다. (-지 않다)
ㄷ. 그의 차는 뽑은 지 채 1년도 안 된 새 차였다. (안)
ㄹ. 출장을 다녀와서 채 쉬지도 못하고 곧바로 출근을 했다. (-지 못하다)
ㅁ. 그곳으로 가기로 마음먹고서도 그 사실을 채 몰랐었어. (모르다)

(10)에서 부사 ‘채’는 ‘-지 않다/안, -지 못하다/ 못’, 그리고 ‘-기 전에’, ‘모르다’와 같은 부정 표현과 공기하고 있다. 이 예들은 ‘채’ 역시 부정극어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리고 ‘채’는 의미·기능적으로 ‘미처’와 비슷해서 경우에 따라 서로 바꿔 사용해도 큰 의미차이가 나지 않는다. 위의 (10-ㄱ, ㄹ)의 ‘채’는 자연스럽게 ‘미처’와 교체될 수 있다.

비록 두 부사가 여러 면에서 상당히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없는 것이 아니다.

10) ‘미처’에 대한 사전 기술은 다음과 같다.

[조선말 대사전]

미처 「부」(‘못하다’, ‘없다’, ‘않다’ 같은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여 어떤 행동이나 동작이 아직 미치지 못한 모양을 나타낸다.

[표준 국어 대사전]

미처 「부」(‘못하다’, ‘않다’, ‘없다’, ‘모르다’ 따위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

[연세한국어대사전]

미처 [부] (행동, 동작, 생각 등이 아직 어떠한 정도 또는 상황에 이르기) 그 전에 미리.

[우리말 큰사전]

미처 (어) 아직 거기까지 미치도록. (‘못하다’, ‘않다’, ‘없다’ 따위의 부정을 뜻하는 말과 어울려 쓰인다.)

우선 통시적으로 봤을 때 ‘미처’보다 ‘채’의 쓰임이 매우 한정적이었다. 문헌 자료에 나타난 ‘채’의 모습을 살펴보자.

- (11) ㄱ. 모다 니르드 경출이 낫치 더르니 그 가져갔다 흐드 채 고디 듯디 아냐
경출이 익구다 흐더라 <서궁 33b>
- ㄴ. 널팔 끄음 만 청 감찰 드러오다 니질이 흐리신 듯호드 그 과운이 채
업디 아니시다 <병자 246>
- ㄷ. 날이 쟈를매 풍뉴를 채 보디 못흐야 하쳐로 도라오니라 <을병연행록 1.
28>
- ㄹ. 이째에 히벗치 채 페디디 못흐고 아즘이 심히 칩더니 <을병연행록 2. 87>
- ㅁ. 일해 즘 첫 날, 채 불기 전에 막달나 마리아가 일족이 무덤에 와서 <요 20:1>
- ㅂ. 이에 곳 채 알지 못흐야 실도함으로 지혜의 악이 잇슨들 엊지 씨 선견안
비 아니 계심을 증명하리오 <경향보감 2:330>
- ㅅ. 채 終 / 채 알다 終知 / 채 아지 못하다 終不知 / 채 모로다 不能的知
(한불자면 589)

(11)은 2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자료에서 나타난 부사 ‘채’와 관련된 예들이다. 예문이 상당히 한정적이고 호응된 부정 표현도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듯하다. 그리고 ‘채’는 ‘미처’와 같이 17세기부터 등장했는데, 자료에 나타난 실제 사용 양상을 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미처’가 더 널리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자리에 ‘미처’가 더욱 주도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 시기에 들어오면서 부사 ‘채’의 사용 영역이 넓어져 ‘미처’에 못지않게 세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채’와 호응되는 부정 표현들이 다양해짐에 따라 빈도에 있어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게 되는데, 호응되는 부정 표현의 구체적 양상은 ‘미처’와 차이를 보인다.

말뭉치(21세기 세종계획 균형말뭉치 1200만 어절)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사 ‘채’와 관련된 518회의 예문 중에 호응된 부정 표현이 ‘지 않다/안’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그리고 ‘기도 전에’가 두 번째로 많으며, ‘지 못하다/못’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예문 10을 참조). 이를

통해 ‘미쳐’는 ‘못’ 부정문과 자주 공기하고, ‘채’는 ‘안’ 부정문과 자주 공기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미쳐’와 ‘채’를 구분하는 데에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

‘못’ 부정문은 흔히 능력 부정문이나 타의(他意) 부정문이라고 한다. 이는 동작주(agent)의 능력을 전제로 하여 동작주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부의 환경이 적절하지 못해서 동작주의 의지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못’ 부정문과 공기하는 ‘미쳐’의 원형의미는 “(외부 환경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동작주의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다”로 정리할 수 있겠다. 따라서 ‘어머니는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셨다’라는 문장에서 ‘미쳐’에 의해 나타나는 의미는 “어머니에게 거기까지 생각할 만한 능력이 있지만, 외부 상황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 할 수 있다.

부사 ‘채’는 “어떤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쳐’와 비슷하다. 그러나 대체로 동작주의 능력과 관련 없는 ‘안’ 부정문과 공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의 원형의미는 역시 “다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다다르지 않는 상태”와 같은 단순 부정의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0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연락이 왔다’라는 문장에서 ‘채’에 의한 의미는 “아직 10분이 되지 않다”의 상태를 나타내며, 동작주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채’는 “어떤 상태에 이르지 않다”와 같은 사태 부정 의미를¹¹⁾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미쳐’는 그렇지 않다.

11) 구종남(2012: 20)에서는 부정을 사태 부정과 능력 부정으로 구분한 바가 있다. 사태 부정은 ‘안’에 의해, 능력 부정은 ‘못’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VI. 맷음말

이 글에서는 각종 사전, 중세·근대 한국어 문헌 자료, 말뭉치를 기반으로 부정소(Neg) 호응 부사로 불리 왔던 ‘미쳐, 채’가 형성되는 과정, 등장한 시기, 그리고 ‘미쳐’와 관련된 ‘못미쳐, 뒤미쳐’의 형성 과정과 형성되는 계기, 또한 ‘미쳐, 못미쳐, 뒤미쳐, 채’의 문헌 자료에서나 현대 시기에서의 기능 및 그 차이점 등의 문제들을 논의해 보았다.

‘미쳐, 못미쳐, 뒤미쳐, 채’는 ‘차례’, ‘순서’를 나타내는 의미장(semantic field)에 속한 단어로서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쳐, 못미쳐, 채’는 “아직 정하여 둔 곳이나 범주에 이르지 않다”라는 공통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서로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각각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뒤미쳐’는 “뒤이어 곧 정하여 둔 곳이나 범주에 이르다”를 의미하므로 ‘미쳐, 못미쳐, 채’와 대립된 의미를 가진다.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들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1) ‘및다’는 문헌 자료에서나 현대 한국어에서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한 과정을 거쳐 그 기준에 다다르다(및다「1」)”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대상에게 영향이나 작용까지 가하다(및다「2」)”이다. 의미의 유연성을 봤을 때 부사 ‘미쳐’는 첫 번째 의미와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및다「1」’의 어간이 ‘-어’와 결합하여 통사적 구성 ‘및-+ -어’가 단어화를 겪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지점이나 기준치에 아직 이르지 못하다”라는 ‘미쳐’의 의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한 지점에 점차 다가오는 과정’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부사 ‘미쳐’는 17세기에 등장하였으며, 근대 한국어 자료에서 ‘밋처/밋처/미쳐’의 형태로 나타난다. ‘미쳐’는 나타났을 때부터 부정극어로 기능하

였고, 자료상에서 주로 ‘-지 못하다/못’과 공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대한국어에서 부사 ‘미처’는 역시 부정극어로 기능한다. 그와 호응하는 부정 표현들이 상당히 다양해졌으며, 빈도 차이도 보인다. 말뭉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 못하다/못’과 공기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지 않다/안’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체’와 정반대의 양상이다. 또한 근대 한국어에서든 현대 한국어에서든 ‘미처’는 형용사를 수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작과 관련되어 앞뒤 시간 관계를 나타내는 ‘미처’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미처’는 시간적 의미로 쓰인다.

3) 명사 ‘못미처’는 중세·근대 한국어 문헌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 시기에 들어와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부사 ‘못’과 부사 ‘미처’가 결합하여 형성된 비통사적 합성명사이다. ‘못미처’의 형성 계기는 ‘미처’의 의미, 또한 ‘미처’가 ‘-지 못하다 / 못’과 흔히 공기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미처’ 그 자체에 “아직 미치지 못하다”와 같은 타의(他意) 부정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 부정 부사 ‘못’을 형태적으로 앞에 외현시킨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는 ‘미처’와 ‘못미처’가 겹친 부분이 많지만, ‘못미처’는 ‘미처’와 달리 공간적인 의미로만 쓰인다. “일정한 곳까지 미처 이르지 못한 거리나 지점”이라는 의미 속에 빈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미처’는 반드시 장소 명사 뒤에 나타나야 하는, 의존명사의 특성을 보인다. 명사로 쓰인 ‘못미처’는 더 이상 부정표현과 공기하지 않는다.

4) 부사 ‘뒤미처’도 중세·근대 한국어 문헌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한국어시기에 ‘뒤’와 ‘미처’의 합성으로 형성된 것으로 본다. ‘뒤미처’는 “뒤이어 곧 정하여 둔 곳이나 범주에 이르다”의 뜻으로, ‘미처’와는 반의관계가 된다. 여기서 “그 뒤에 곧 잇따라”라는 의미 속에 ‘정하여 둔 곳이나 범주와 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거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미처’보다 그 개념이 세분화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뒤미쳐’는 ‘미쳐’가 표현하는 개념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때, 곧 하위범주화의 필요성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뒤미쳐’는 ‘못미쳐’와 달리 명사적 용법이 없다. ‘뒤미쳐’는 ‘미쳐’와 반의관계를 가진 부사로서 부정표현과 공기하지 않고, 오직 “곧 잇따라”와 같은 시간 선상 앞뒤 시간 관계만을 나타낸다.

5) 문헌 자료를 따르면 ‘채’는 ‘미쳐’와 같이 17세기부터 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이르는 말인데, “어떤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다”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쳐’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둘이 차이점이 없지 않다. 우선 근대 한국어 문헌 자료에 나타난 ‘채’의 쓰임은 ‘미쳐’에 비해 한정적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 시기 이전에는 “어떤 기준치에 이르지 못하다”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자리에서 ‘미쳐’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 한국어 시기에 들어오면서 ‘채’의 사용이 폭넓어짐에 따라 ‘미쳐’와 같이 다양한 부정적 표현과 공기하게 되었는데, 그 공기되는 부정 표현의 범도에 있어서는 둘이 차이가 난다. ‘채’는 ‘안’ 부정문과 자주 공기하는 반면, ‘미쳐’는 ‘못’ 부정문과 자주 공기한다. 이와 같은 경향성을 기반으로 봤을 때 ‘못’ 부정문과 함께 사용되는 ‘미쳐’의 원형의미는 “(외부 환경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동작주의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다”이고, ‘채’의 원형의미는 “다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다다르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채’는 “어떤 상태에 이르지 않다”와 같은 단순 부정 의미, 중립적 부정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채’는 ‘미쳐’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의미로 쓰인다.

참고문헌

1. 논저류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총서 30, 국어학회.
- 국립국어연구원(1993), 《국어 사전에서의 합성어 처리에 관한 연구》, 국립국어원.
- 김경훈(1996), 현대국어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남승호(1998), 한국어 부정극어의 유형과 그 허가조건,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217-244.
-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사.
- 손남익(1995), 《국어 부사 연구》, 박이정.
- 유창돈(1978), 《語彙史 研究》, 이우출판사.
- 이지영(2006), 中世國語 ‘아직, 안죽, 안즉, 안작’의 意味와 통사적 특징, 《어학 연구》 3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09-135.
- 이지영(2010), ‘아직’의 통시적 변화, 《국어학》 59, 국어학회, 103-129.
- 이현희(2010a), ‘체’와 ‘째’의 통시적 문법, 《규장각》 36, 73-134.
- 임유종(1998), 국어 부사의 하위 분류, 《어학연구》 34-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75-204.
- 임유종(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 임유종(2005), 부정소 호응 부사에 의한 연어와 사전 기술, 《한국언어문화》 27, 한국언어문화학회, 235-256.
- 임지룡(1997), 새 낱말 창조의 인지적 연구, 《국어교육연구》 29-1, 국어교육학회.
- 최진영(1999), 부정극어 더 이상의 분포와 의미,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형용(2003),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국어학총서 45, 국어학회.
- 홍종선 외(2006), 《후기 근대국어 형태의 연구》, 역락.
- Downing, P.(1977), On the creation and use of English compound nouns, *Language* 53, Number 4, 810-842.

2. 사전류

-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김민수 외 편(1992), 《금성판 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2006),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한글학회(1995),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